



이달의 포커스 뉴스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 신발산업

- 주문량 감소로 인한 베트남 신발 산업 침체
- 신발 산업 침체 장기화로 대규모 감원 발생 등 베트남 경제에도 타격

5P

노동허가 관련 규정 변경점 검토 ...by 전현우 변호사

- 노동허가 인정범위 변경, 채용 공고 의무사항 발생
- 여러 성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보고 의무 발생 등

16P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한국에너지공단 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팀코리아협업체 동정>	한-일 투자진출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업탐방>	SW F&B 13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률> 노동허가 관련 규정 변경점 검토	전현우 변호사 16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재>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대한상사중재원 18
<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관> 수입 부가세 공제의 경우와 조건	박민설 관세사 19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견뎌성>	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달의 보고서>	26
	2023 베트남 온·오프라인 신유통채널 현황 및 농식품 진출전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27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2

올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

HAPPY NEW YEAR



베트남 농업 발전의 밑거름, 유기비료 시장 분석

- 베트남 농업, 유기비료 사용 증가세
- 베트남의 수입 유기비료 시장, 선도기업 없어 진출 기회

베트남 유기비료 시장의 성장 요인

첫 번째 요인은 공급자의 선호도 증가이다. 베트남의 농업 종사자들이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추구하게 되면서 유기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대됐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도시화와 함께 중산층이 성장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베트남의 중산층은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건강을 위한 제품에 민감하며 이러한 제품을 소비하기 위한 지출에 대해 보다 과감해지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베트남 도시 지역의 채소 및 꽃 재배 유행이다. 베트남 사람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꽃을 좋아해 도시 지역에 발코니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관상용 식물, 꽃 또는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료를 사용하는데, 이때 무기 비료보다 유기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 요인은 유기비료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인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이익을 인식하고 유기비료 산업을 지원해 왔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2022~2025년 유기비료 생산 및 사용 증가를 위한 행동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 유기비료 사용량을 2020년 대비 1.5배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규모 및 전망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0~2030년 유기농업 개발사업(Organic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OADP)' 시행 3년째인 지난 2020년, 전국의 유기농업 지역 면적은 약 24만 헥타르에 달했다. 면적 측면에서는 2016년 약 5만 3000헥타르에 비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생산량 측면에서는 아직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농촌농업개발부의 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은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2020년 베트남의 비료 소비량은 1023만 톤이며, 이 중 무기비료가 760만 톤, 유기비료가 263만 톤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베트남의 농업인들이 아직까지는 무기비료 남용의 장기적인 폐해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보다 유기비료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무기비료 사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한국, 중국 등으로 바나나를 수출하는 H사의 V이사에 따르면, 유기 비료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더 긍정적이지만 유기 비료 사용에는 무기 비료 사용 시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농부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유기농 제품은 합성비료, 농약, 성장촉진제 등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건강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베트남도 전통 농업에서 유기농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한 시장조사기관(Mo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기비료 시장은 2023~2028년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소형 주방가전 시장 동향

- 베트남인들의 식사 관련 습관 변화가 소형 주방가전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
- 가격적 측면 외에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마케팅 포인트 개발해야

시장현황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베트남에서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형 주방가전 시장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코로나 이후 집밥이 대세가 된 베트남

베트남의 소형 주방가전 시장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베트남인들이 집에 머물며 요리를 해 먹는 생활 양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가성비' 가전제품이 인기

가전제품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이지만 고가의 투자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구매를 연기하거나 저가형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주방가전 제조, 판매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시아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 침체 상황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의 가전 구매 패턴이 가격 대비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으로 전했다. 이에 베트남 진출 한국 주방가전 제조, 판매사는 밥솥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필수로 들어가는 압력 기능을 빼고 밥솥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했다.

시사점

베트남 소형 주방가전 시장은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 도시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의 소형 주방가전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가격을 무기로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큰 어필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중·고가의 프리미엄 소형 주방가전 시장 또한 성장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트남의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돼 저가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베트남의 소형 주방가전 시장이 성장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다기능 제품 등에 대한 수요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소형 주방가전 기업들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 가격 측면 이외에 베트남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베트남 식음료 포장기기 시장 동향

- 단순한 포장에서 친환경을 추구하는 포장으로
- 시장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해야

베트남 식음료 시장 성장에 따른 포장기기 시장 동향

베트남의 식음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베트남 식음료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포장기기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들의 안전·위생 의식 제고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포장 수요 증가 ▲언택트 문화의 등장과 배달음식 시장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으로 언택트 문화 확산이 베트남 음식 배달 시장과 포장기기 시장 성장을 견인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꿨는데, 특히 베트남의 식음료 소비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베트남의 식음료 배달 시장은 성장 추세였지만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바뀐 생활 문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의 1회용 포장 기기 시장 발전에 따라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의 가구당 월 평균 비닐봉지 사용량은 1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베트남 정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세를 부과중이나 소비자들의 소비습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하루 약 2,500톤으로 이 중 재활용되지 못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30~70톤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러한 환경 오염에 문제의식을 느낀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순환 경제 개발계획(687/QĐ-TTg)를 발표했다.

시사점

포장이란 단순히 물건을 싸거나 제품을 보호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포장은 제품의 생명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포장의 설계와 재료의 선택은 제품의 환경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최근 포장은 단순한 외관뿐만 아니라 제품의 내용물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까지 담으려는 듯 보인다. 베트남의 포장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 친화적인 포장 방식에 대한 고려와 적용이 필수적일 것이다. 베트남 포장기기 시장 진출을 바라는 우리기업들은 이같이 베트남의 다양화되는 포장 산업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고 그 요구에 맞는 제품을 준비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 신발 산업

- 주문량 감소로 인한 베트남 신발 산업 침체
- 신발 산업 침체 장기화로 대규모 감원 발생 등 베트남 경제에도 타격

베트남의 ▲저임·양질의 노동력 ▲우수한 교역환경은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됐다. 때문에 베트남의 신발 산업은 코로나 이전까지 큰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경제 침체, 베트남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신발 산업의 침체가 시작됐다.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2020년에는 베트남 신발 시장 규모가 약 6.9% 감소했다. 이어서 2021년에도 시장 규모가 약 16.4%까지 하락하는 등 팬데믹으로 인해 베트남 신발 제조 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회복세에 반등했던 신발 수요는 2022년 하반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시 감소했다. 이러한 침체 상황은 2023년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문량 감소로 인한 베트남 신발 산업 침체

현재 베트남 신발 업계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주문량 감소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베트남의 주요 시장인 미국·유럽 지역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을 불러왔고 이는 베트남 신발 업계의 주문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신발업계 침체로 대규모 감원 발생

신발 업계 침체가 장기화 국면을 보이자 기업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을 꺼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감원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원 대상에는 생산라인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숙련공이나 기술공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감원되면 이후 주문량이 회복 시 생산 능력이나 납기 준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숙련공이나 기술공은 기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 훈련시킨 고급 인력으로, 기업은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 등의 방법으로 감원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발 업계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필수 인력조차도 감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전망

베트남 신발 업계의 침체는 2023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 시장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회복세가 베트남 신발 업계의 주문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기업의문의가많았던베트남건강기능식품시장동향

- 홍삼, 침향 등 식물성 원료 식품 인기
- 수출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제품 인증에 유의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건강에 관한 베트남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커졌다. 이에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에 앞서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양제·건강기능식품 등의 소비 및 관련 기업은 현재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에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바로 구매력 개선 및 고령화이다. 현재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대부분 홍삼, 침향(Agarwood), 생강 등 식물성 원료로 이루어진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 등록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서류 필수

건강기능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 분류에 따른 표기(라벨링·Labeling), 필요 서류 등 준비에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식품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베트남 규정에 따른 제품 정의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Thuc pham bao ve suc khoe)은 보충식품(Thuc pham bo sung)과는 구분된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유효 성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합을 함유하여 캡슐(Capsule), 펠릿(Pellet), 정제(Tablet), 점액질(Glue), 과립(Granule), 분말(Powder), 액체(Liquid) 및 기타 가공 형태로 만들어진 식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효성분에는 1)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유산균(Probiotics) 및 기타 생물학적 유효 물질 또는 2)추출, 분리, 농축 및 대사 과정을 거쳐 동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된 유효 성분이 포함된다. 또한, 베트남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일반 보충식품의 경우, 식품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화기구 ISO 22000 기준 및 HACCP 인증만 갖추어도 충분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GMP 인증을 반드시 별도로 받도록 해야 한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유통·수입 등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현행 절차를 잘 확인해 건강기능식품 수출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하여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지 향후 잘 살펴봐야 한다. 또한 제품군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별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좁은 시장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22년 기준 베트남의 2차산업은 전체 GDP의 38.26%를 차지) 평균적인 근로 강도가 높은 베트남의 생산 인구를 위한 피로회복제, '찐 자이 자 짱(Chân dài da trắng, '긴 다리 흰 피부'를 뜻하며 미의 기준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서 베트남 내 통용됨)'을 원하는 여성 소비자를 위한 미백 개선 기능성 식음료, 청소년층을 겨냥한 성장 촉진 성분 함유 건강 기능 식품 등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하노이, 42억 달러 규모 스마트시티 사업 착수

하노이시는 지난 11일 270헥타르에 달하는 42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착수하였음. 스마트시티 사업은 5단계로 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완공될 마지막 단계에는 쇼핑몰과 108층짜리 금융센터를 포함한 특별 하이라이트 구조물의 건설이 포함될 것이라고 함. 즈엉 득 뚜안(Duong Duc Tuan) 하노이 인민위원회 시장은 이 사업이 하노이 시내와 서호 지역, 그리고 노이바이 공항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 또한 교통, 에너지, 교육, 의학, 환경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Tuoitre 11.12]

▶ 베트남, 지방정부에 야간 경제 활성화 촉구

지난 15일 '베트남 관광 산업'의 주제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베트남 팜 민 쩌(Pham Minh Trinh) 총리는 각 지방정부에 야간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을 촉구함. 야간경제(夜经济)란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혹은 2시)까지 발생하는 서비스업 비즈니스 활동을 지칭함. 이날 팜민쨌 총리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각 지방 정부지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음. 베트남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5,0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1억 6,000만 명의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Vnexpress 11.16]

▶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GMT) 2024년 도입 추진 본격화

베트남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결의안 관련 의견 청취하고 있음. 호 득 썩(Ho Duc Phoc) 재무부 장관은 11월 9일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E) 규칙'에 따른 법인세 추가 부과 관련 결의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GMT 도입 추진 배경은 추가 세수 확보에 있음. '22년 통계 기준 베트남 내 122개 FDI 기업이 결의안 적용 대상이며, 베트남 기업 중 적용 대상은 6개 기업임. 법인세 추가 확보 예상액은 14조 6,000억 동(약 6억 300만 달러) 임.

[Vietnamplus 11.10]

▶ 베트남 2024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목표 성장률, 6.0~6.5%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내외 시장 전망에 따른 2024년 목표를 설정함. 전체 GDP 중 제조가공업 비중 목표치는 24.1~24.2%. 노동생산성 목표 성장률 4.8~5.3%, 1인당 국민소득 목표 4,700~4,730달러임. 국회는 정부에 주요 프로젝트 및 국가 단위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지출 확대, 철도 및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 가속화, 반도체 연구·생산 등 주요 산업 인적 자원 양성 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통제 등 촉구했음

[Tuoitre 11.10]



▶ **베트남, 내년 경제성장률 6.0~6.5% 목표**

지난 9일 베트남 국회는 내년 경제성장률(GDP) 목표를 6-6.5%로 결정하였으며, 내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를 담은 사외경제적 발전계획에 관한 결의안을 90.5%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음. 이날 국회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6.0-6.5%를 목표,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 4.0-4.5% 유지할 것이며, 1인당 GDP는 4700~4730달러로 높인다고 설명하였음.

[Vnexpress 11.9]

▶ **베트남, 전기요금 4.5% 인상...올들어 두번째**

베트남의 전기요금은 11월 9일부터 kWh당 4.5% 상승했음. 베트남전력공사(EVN)는 전 기요금을 2023년 5월 3% 인상시킨 이후 이번 11월 4.5% 상승시켜 평균 전력 가격이 kWh당 1,920.37동에서 2,000.79동으로 인상되었다고 전함. 이는 베트남전력공사의 지속적인 적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베트남 전력공사는 현재 1kWh당 약 2,098동의 비용이 든다고 전했으며,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22년 베트남 전력공사는 약 26조 동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8월까지 약 28조 동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했음.

[Vnexpress 11.9]

▶ **호치민시, 1~10월까지 실업수당 신청자수 14만 2,700만명...전년 대비 11%증가**

호치민시는 올해 10월까지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14만 2,700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 가함. 근로자는 평균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고, 급여는 최대 2,340만 동에 서 최저 130만 동, 평균 550만 동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실업자 연령대는 25~40세 기준 여성이 36%, 남성이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40세 이상 기준으로 여성이 16%, 남 성이 14%의 비중을 차지함. 베트남은 전체적으로 10개월간 실업률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가족 생산 부문 17%, 광물 채굴 부문 12%, 배수 및 폐수처리 부분에서는 10% 감소하였음.

[Vnexpress 11.06]

▶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IP) 10개월 만에 0.5% 상승...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

지난 10월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IIP)가 10개월 만에 0.5% 상승,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을 기록해 제조업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로 풀이되고 있음. 피 티 흐엉 응아(Phi Thi Huong Nga) 산업건설통계국장은 가공업과 제조업, 광산업 부문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3분기에 비해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 음.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산업별로 고무·플라스틱 제품과 담배가 각각 9.5%, 9.1% 증가했 고, 조립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제외) 8.7%, 광물 채굴 6.3%, 식품가공 6.1%, 화학물질·제 품 5.9%, 상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5.3% 순으로 증가함. 반면, 기타 운송수단과 자동차가 각각 7.3%, 4.1% 감소했고,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업이 4%, 비금 속광물 3.7%, 종이·제지 업이 2.7%로 감소함

[Vnexpress 11.6]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Hau Giang Green Hydrogen Plant

Sepon Wind Power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e.kim@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Hau Giang Green Hydrogen Plant

발주처	0 기관명 : Hau Giang's People Committee
프로젝트	0 현장위치 : Phu Thanh Commune, Chau Thanh Ward, Hau Giang Province 0 규모 : 약 500 백만 달러 (잠정) 0 프로젝트 재원 : 발주처 자본(25%) 및 커머셜론(75%) 0 프로젝트 단계 : 기획 (공동투자자 모집중) 0 입찰방식 : 추후결정 0 세부내용 - 프로젝트 기간 : 2025~2030 - 사업지 면적 : 60ha - 설치용량 : 260MW - 상업운전시기 : 2031년

Sepon Wind Power

발주처	0 기관명 : Song Da 9.06 Investment and Development JSC
프로젝트	0 현장위치 : Sepon District, Savanakheth Provinc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os) 0 규모 : 최대 1.8백만 달러 0 프로젝트 재원 : 투자자 자본 및 커머셜론 0 프로젝트 단계 : F/S 준비 0 입찰방식 : 국제/국내 입찰 0 세부내용 - 프로젝트 기간 : 2023~2025 - 사업지 면적 : 3,546ha - 설치용량 : 300MW - 윈드터빈 설치 개수 : 66개



한국에너지공단(KEA)

■ 한국에너지공단 소개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하여 1980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창립 이래 공단은 에너지 효율향상,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강화 물결과 에너지수급 위기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이 더욱 중요 해졌으며, 글로벌 기업의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따라 재생에너지보급은 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시대, 공단은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정부와 국민이 맡긴 중차대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이 이끌고 공공이 미치는 역동적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베트남 ODA 프로젝트 소개

베트남 산업부문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KRIC), 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 등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단은 프로젝트 대표사로서 총괄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국가이며 경제성장률과 비례하여 산업분야 에너지사용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VNEEP(Vietnam Energy Efficiency Program)를 통하여 자국 산업분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총 20개 사업장에 대해 한국 전문가 및 베트남 현지 진단기업이 협력하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개선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효율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22년도에 2021~2030년 기간 동안의 국가단위 녹색성장 전략(VGGS: Vietnam Green Growth Strategy)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성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고품질의 계획 수립을 위하여 10개 성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후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행력 있는 녹색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KOICA 베트남 EE&GG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베트남 산업계 에너지효율 투자시장 활성화 및 색성장계획 지원
- 나. 사업기간 : 2021.10.20. ~ 2025.6.30.까지(약 48개월)
- 다. 사업예산 : 640만불
- 라. 주요사업내용

- ①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 사업 총괄, 에너지효율 투자사업 발굴, 에너지효율 지침 수립
- ②  **KRIC** 한국기후변화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 녹색성장 계획 지원, 녹색성장 분야 역량강화 지원
- ③  **KDS**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 현지 전문가 역량강화 및 교육, 초청연수, 성과관리 등



■ 세부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에너지효율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종에 대한 산업체 에너지효율 정밀진단 ▪ 진단 기반 에너지효율 투자사업 발굴(예비타당성 검토 지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효율 교육과정 개발 및 현지연수 실시 ▪ 녹색성장 교육과정 개발 및 현지연수
에너지효율화 및 녹색성장 가이드라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감 벤치마크 개발 ▪ 에너지효율 기술가이드라인 개발 ▪ 녹색성장/녹색투자 가이드라인 개발
지방정부 녹색성장 액션플랜 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다소비성에 대한 녹색성장 액션플랜 수립 ▪ 에너지 다소비성에 대한 기후투자보고서
홍보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및 토크쇼, 동영상 제작, 홍보 등

■ 향후계획

본 프로젝트는 2025.6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에너지효율향상 분야와 관련하여 2024년에는 총 10개의 산업체 진단을 수행하고 우수 개선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10개 성에 대한 녹색성장 실행계획 보고서가 완료됨에 따라 계획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착수 컨퍼런스(22.4.20)>



<산업체 현장진단(23.6.6)>



<녹색성장 지원 워크숍(23.8.17)>



<에너지 효율 향상 워크숍(23.10.26)>



한-일 투자진출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가 지난 28일 JW 메리어트에서 개최됐다. 코트라가 주최하고 JETRO(일본무역진흥원), 코참, JCCI(일본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코참 회장단과 KEPCO, 한화에너지, SK 에코플랜트, 삼성 엔지니어링 등의 한국 기업들과 JCCI 회장단, JETRO를 비롯한 Marubeni, Mitsubishi, SOJITZ 등의 일본 기업들을 포함해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트라 동남아대양주지역 이희상 본부장(하노이 무역관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다’며 ‘본 행사를 계기로 양국 베트남 진출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베트남 및 아세안 지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와 성과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ETRO 하노이사무소의 Takeo NAKAJIMA 소장(JCCI 부회장)도 ‘베트남에서 한일 양국 기업이 만나 교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하고, ‘서로의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잘 논의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각 기업에 대한 소개 시간에 이어 코참 홍선 회장은 양국 기업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축하하며, ‘양측이 각자의 강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면 베트남 시장에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폐회사를 전했다.



<끝>



베트남 팀코리아협의회 활동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넘버원 레스토랑 인 베트남’을 위해

SW F&B 김주명 대표

SW F&B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비즈니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SW F&B는 2016년 백종원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본가1호점을 오픈하며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26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 베트남 내 한식당은 대부분 생계형 식당이었고, 제대로 갖춰진 공간과 환경에서 한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손님들이 한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외식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브랜드 운영 7년차인 현재 하노이에서는

빈컴 바피우점 본가, 하노이 빈컴 찐지흥점 새마을식당, 백철판, 홍콩반점, 그리고 경남 랜드마크72 본가(11월 오픈예정) 총 5개 브랜드,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치민에서는 빈컴 랜드마크81점 본가, 빈컴 동케이점 홍콩반점, 백철판, 시내 1군 45번지 본가 총 3개 브랜드 4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더본코리아 브랜드 이외에도 해산물 샤브샤브 뷔페인 마로 259라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여 더본코리아 브랜드와 자체브랜드를 합하면 총 6개 지점에 10개의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식당이라 주요 고객층이 한국인일 것으로 많이 예상하시는데요, SW F&B 고객의 70% 정도가 베트남인을 포함해 서양인,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이며, 특히 호치민 매장들은 외국인 고객의 비중이 하노이 보다 더 높습니다. 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자체 브랜드 ‘마로259’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브랜드 경우 워낙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인기 순위가 모두 다른데 베트남에서는 ‘본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홍콩반점, 새마을 식당, 백철판도 매니아 층이 있지만 ‘본가’의 인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체 브랜드 ‘마로 259’는 어떻게 하면 좋은 해산물들을 고객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런칭하게 된 해산물 샤브샤브 무한리필 브랜드입니다. 베트남은 바다가 매우 넓고 거의 모든 해산물들이 나오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해산물 가격이 비쌉니다. 기존에 운영중인 브랜드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구매파워가 생기면서 좋은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고, 해산물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여 최적의 해산물 조합을 찾았습니다. ‘마로259’의 뜻은 ‘마로’라는 생선이름에서 착안하였고 259는 259,000동 즉 인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샤브샤브란 음식 자체가 베트남인들도 즐겨먹는 대중적인 음식이지만 한국식 샤브샤브 전문점은 없었습니다. 저희 ‘마로259’는 한국식 샤브샤브에 베트남 고객들이 좋아하는 야



채나 소스들을 같이 배치하고, 떡볶이, 김밥, 잡채, 불고기 등 인기있는 한식들을 샐러드바 형식으로 함께 제공합니다. 현재 '마로259'는 하노이 빈컴 찐지흥점과 경남 랜드마크72점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호치민 매장도 오픈 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외식/프랜차이즈 산업 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베트남에서 외식/프랜차이즈업은 맛도 중요하지만 입점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뿐 만 아니라 식사 전후에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마련된 곳을 즐겨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외식업으로 성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음식 맛도 중요하고, 합리적인 가격, 점포의 위치,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장 내에서의 퍼포먼스, 분위기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신경 쓸게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베트남에서 외식업을 하려면 맛, 가격, 고객들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줄 수 있는 주인과 직원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식업은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십원빵의 경우 지금 베트남 남부 까마오성에서도 십원빵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로 40만원 가량하는 기계만 사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외식업을 하려면 판권 등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외식업에서 청결은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식당들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위생인 만큼 이부분에서 차별화 되어야 합니다. SW F&B의 모토가 '넘버원 레스토랑 인 베트남'인데, 위생, 맛, 음식 모두 최고가 된다는 의미인 만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하고 계신 활동이나 사례가 있으신지요?

특히 SW F&B가 주관하거나 기획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참, 한인회, 코트라 등 한국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부를 하는 편이었는데, 지난 11월초에는 코트라가 주관한 '베트남 일촌일품(OCOP) 연계 CSR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OCOP 제품 디스플레이를 OCOP 제품 홍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빈컴 찐지흥 매장내 일부 공간을 2주 동안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추후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기업 특성을 살려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중인 사업이 있으신가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2023년에 베트남 음식을 가지고 한국으로 진출하려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그 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지만,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한국에서 베트남 식당을 런칭하고 싶습니다. 한국-베트남 양국 교류 및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고, 베트남 식당도 많이 생겼지만 한국에 사는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 베트남에서 먹었을 땐 맛있는데 왜 한국에서 먹으면 맛이 없냐는 소리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베트남 음식을 제대로 하는 식당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요리사의 문제일수도 있고, 재료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직원이 420명 정도 되는데 70명 정도 선발해서 집중 트레이닝 하고 제가 베트남에서 외식업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해당 직원들과 한국에 가서 제대로 된 베트남 식당을 런칭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베트남 관심기업에게 조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외식업을 하겠다는 분들에게 늘 주요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주요 타겟 고객을 설정하지 않고 막연히 한국 교민들도 많고, 한식이니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타겟으로 한식을 팔려면 한국에서 하면 됩니다. 한국인을 타겟으로 한 식당들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교민들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식당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살아남기가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인식과 달리 한식 뿐만 아니라 인도, 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 각국의 음식들과 경쟁하여 베트남 사람들을 타겟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즉 '현지화'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바로 '현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 표준 레시피 기준 1인분으로 갈비탕을 만들면, 베트남 여성 3인이 식사가 가능한 양으로 제공됩니다. 가격을 조금 낮추더라도 음식량을 줄이고 현지화 시켜야 하지만 본사 레시피 기준 정량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현지화 시키기 위해 본사와 꾸준히 소통 중에 있고, 자체 브랜드 마로259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현지화 시키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식업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 고객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



노동허가 관련 규정 변경점 검토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9월18일 신규 노동허가 관련 시행령(70/2023/ND-CP)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노동허가 시행령은 기존 노동허가 관련 규정을 상당히 개선했다 평가되는 바,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새로이 시행된 노동허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어떠한 점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2. 노동허가 변경점 검토

❖ 노동허가 인정범위 변경

기존 노동허가 관련 규정에서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전공’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규정은 베트남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직위에 적절한 학위 및 관련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경력 뿐만 아니라 학위까지 요구되고 이러한 학위가 해당 직위에 적절한지 부분이 항상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재무 관리자로 근무할 관리자가 경영 등 관련 전공이 아닌 미술, 교육 등 학위를 보유한 경우, 관련 학위가 없어 전문가 관련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정에서는 학위 또는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앞선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감소하였다 할 것입니다. 단, 이는 일반 노동허가에서 요구하는 분야이며, 각 개별법령에서 어떤 직위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학위 및 자격증과 같은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을 비롯한 위험제조업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바, 이는 노동허가와 별개로 요구되는 요건인 만큼 이 또한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채용 공고 의무사항 발생

이는 새로 신설된 규정이며, 일반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정입니다. 신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앞서, 해당 외국인 채용 예정 직위에 베트남인을 채용하는 공고를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채용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채용공고 이후 베트남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

베트남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인지, 노동허가 자체가 불요한 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문에 노동허가 면제신청을 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신 경우가 있고, 반대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과 같이 노동허가 절차를 진행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신 규정은 베트남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노동허가 면제 신청 및 면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불이익한 변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모호하던 과거 규정으로 인해 발생 하였던 불확실함과 노동허가 면제 신청서류가 간소하다는 점은 반드시 불리하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 여러 성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온라인 보고 의무 발생

어떤 회사의 경우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닌에 본점을 두고 흥옌에 지점을 둔 기업에서 근무하는 A가 박닌, 흥옌 두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 규정에서는 고용근무 3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국에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마치며

몇몇 보고의무 및 사전 채용공고 의무 등을 제외하면 신 규정은 구 규정에 비해 이전 규정에 비해 명확하고 간소화된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니 만큼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요한 행정위반 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대한상사중재원, 한국NCP사무국

1.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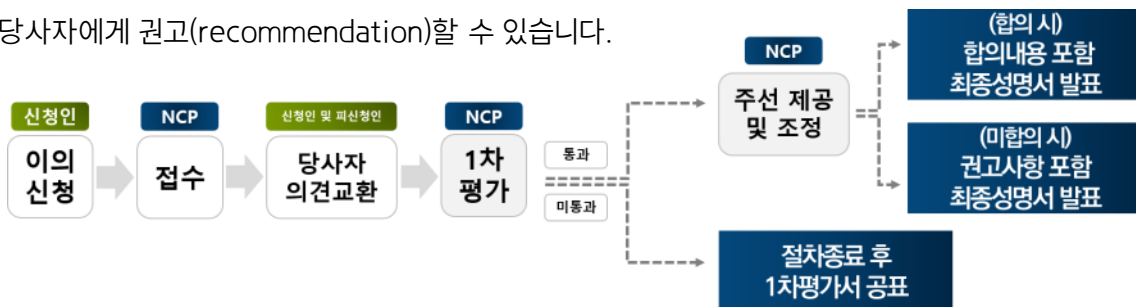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각국 정부가 설립한 기구입니다. NCP는 가이드라인 및 관련 실사(due diligence) 지침에 대하여 홍보하고, ‘이의신청 사건’이라는 비사법적이며 자발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책임경영(RBC)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OECD NCP 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51개 정부가 NCP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700건의 이의신청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2. “이의신청 사건(Specific Instance)”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해당 쟁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NCP에 해당 기업을 상대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이의신청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NCP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쟁점이 발생한 국가에 NCP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NCP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NCP는 가이드라인 위반 쟁점 해결을 위하여 중재·조정 플랫폼을 제공하며, 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NCP를 통한 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청인이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NCP에 제출하면, NCP는 작성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피신청인인 상대 다국적기업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진행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NCP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6가지 기준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1차평가’를 시행합니다. 1차평가를 통과한 사건에 대해 NCP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선을 제공합니다. 1차평가 결과 추가 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되고 NCP는 1차평가서를 공표합니다. NCP의 사건처리 절차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NCP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적으로 보상을 제공하거나,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NCP는 최종성명서에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대해 당사자에게 권고(recommendation)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양식 및 현재까지의 한국 NCP 분쟁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 한국NCP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ncp.or.kr



수입 부가세 공제의 경우와 조건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Q. 수입 물품의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가 가능하다면 수입부가세의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매입 부가세의 공제 원칙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219/2013/TT-BTC의 제 14조 제 1항 (부가세법 시행규칙 26/2015/TT-BTC 제 1조 9항으로 개정)에 따릅니다.

219/2013/TT-BTC 제 14조 제 1항 매입 부가세 공제 원칙

1. 부가세 과세대상 물품 및 용역의 생산 및 경영을 위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매입 부가세는 전부 공제되며, 손실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환급 불가능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환급 불가능한 손실의 경우에 대한 공제 가능 경우는 다음을 포함한다: 천재지변, 화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손실, 품질이 저하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파기해야 하는 물품. 이러한 경우 사업체는 공제를 받기 위해 환급이 불가능한 각 경우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 및 자료가 있어야 한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세는 기업이 과세 대상 물품 혹은 용역을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경우 그러한 물품에 대한 매입 부가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입 부가세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 법적으로 적합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있거나, 수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 보유
- 만약 영수증 상 금액이 2천만동을 넘는 경우, 현금을 사용하지 않은 결제에 대한 증빙 필요

즉, 2천만동이 넘는 경우에는 현금 결제가 아닌 은행 계좌이체 혹은 수표, 추심, 카드 등과 같은 결제수단의 활용 및 그에 따른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현금 결제 증빙의 조건은 수입 물품의 가치는 1건당 2천만동 미만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영수증 상 금액이 2천만동을 넘는 경우 및 사업체에서 수입한 물품이 해외 기업 및 개인의 선물 혹은 증여품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수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사용된 경우 (예시: 부가가치세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부가가치세 영수증으로 판매자 혹은 구매자의 상호, 주소, 세금 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판매자 및 구매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영수증 및 납부 증빙이 위조되거나, 삭제된 경우 및 허위로 작성된 경우

출처: thu vien phap luat 질의 응답 [Thuế GTGT hàng nhập khẩu có được khấu trừ không? Điều kiện để khấu trừ thuế GTGT hàng nhập khẩu? \(thuivienphapluat.vn\)](http://thuivienphapluat.vn)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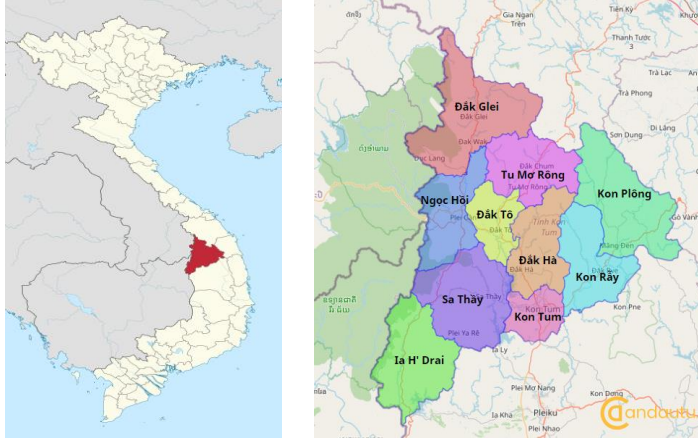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 - 껀똥성

□ 껀똥(Kon Tum)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9,677.3km² ▪ 인구: 580 백만 명 ▪ 도시거주 비율: 32.56%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껀똥성은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 삼각 지역의 핵심 지역인 서부고원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산악 고지대 성임. 서부고원지역 또는 띠이응우옌(Tay Nguyen) 지역은 껀똥성, 껀똥(Gia Lai)성, 닥락(Dak Lak)성, 닥농(Dak Nong)성과 럼동(Lam Dong)성을 포함함. 껀똥성은 서부고원지역의 5개 성 중 하나이며, 동서 경제 회랑 지역과의 경제 개발 협력 및 국방-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껀똥성은 서쪽으로는 라오스와 캄보디아, 북쪽으로는 광남(Quang Nam)성, 동쪽으로는 광응아이(Quang Ngai)성, 남쪽으로는 자라이(Gia Lai)성과 접해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로: 14번, 14C, 40번, 40B, 24번 • 껀똥시에서 주요 중심지 및 대도시까지의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이꾸(PleiKu) 공항 - 잘라이(Gia Lai)성: 50km ✓ 광남(Quang Nam)성: 170km ✓ 광응아이(Quang Ngai)성: 210km ✓ 꾸이년(Quy Nhon)시 - 빈딘성: 280km ✓ 다낭(Da Nang)시: 320km ✓ 아타프 주(라오스): 110km ✓ 참파삭 주(라오스): 250km ✓ 우본랏차타니 주(태국): 340km
GRDP 성장률 / 1인당 GDP('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9.5% • 성 1인당 GDP: US2,185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US 3.2억 달러 / 총 수입액: US 0.06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4.88%), 서비스업(8.03%), 농수산업(6.19%)
산업구조('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30.78%, 서비스업 41.41%, 농수산업: 19.42%
노무여건('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령 인구 비율: 59% •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55.7%
최저임금('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껀똥시, 닥하(Dak Ha)현: VND3,640,000= US152 달러(3급지) • 타 지역: VND3,250,000= US135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2.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껀똥성의 총 외국인투자는 8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2.13억 달러 • (한국) 1개 프로젝트, 0.11억 달러, 껀똥성에 투자한 6개의 국가 중 건수 기준으로 3위, 투자액 기준으로 2위 규모



□ 투자환경



컨똘성 위치 및 지도

0 교통 시스템

(도로) 컨똘성 전체에는 현재 총 길이 6,082km의 도로가 있음. 그중:

- ▶ 국도: 총 길이가 441.47km인 5개의 국도(14번 국도, 14C 국도, 40번 국도, 40B 국도, 24번 국도)
- ▶ 성도로: 총 길이가 486.02km인 15개의 성도로

고정 여객운송 노선은 주로 호치민 로드와 24번 국도를 따라 개발되어 있음. 성에는 75개의 고정 여객 운송 노선이 있으며, 그중 65개의 지방 간 노선, 5개의 지방 내 노선, 5개의 국제노선(베트남-라오스)이 있음.

(항공) 현재 컨똘성에는 공항이 아직 없음. 컨똘성의 항공 운송 활동은 여전히 컨똘성 도심에서 50km 떨어진 잘라이(Gia Lai)성의 프레이꾸(PleiKu) 공항을 통해 주로 수행됨.

0 관광

자연의 축복을 받은 컨똘성은 풍부한 역사, 오랜 국가 문화 전통과 함께 많은 자연 그대로의 장엄한 풍경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관광 개발을 위한 많은 잠재력과 이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컨똘성은 유네스코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떼이응우엔(Tay Nguyen)의 공 문화 공간(Space of gong culture)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지역 중 하나임. 공은 베트남 중부에 사용하는 고대 전통악기이며, 떼이응우엔(Tay Nguyen)의 공 문화 공간은 공, 악보, 연주하는 사람들, 공을 사용하는 축제, 축제가 열리는 장소 등의 요소를 포함함. 게다가 컨똘성은 룡렝(Lung Leng) 고고학 유적지가 발견된 곳임.



떼이응우엔(Tay Nguyen)의 공 문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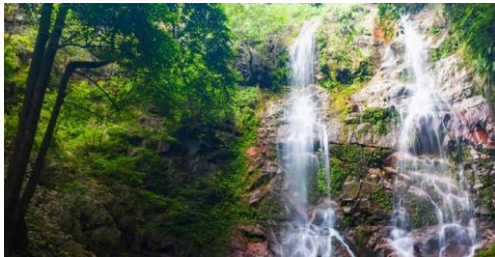
공 문화 공간 외에 껀플롱(Kon Plong) 현의 망덴(Mang Den) 국립 생태관광 지역은 생태관광 및 리조트 개발에 큰 이점을 창출해 왔음. 껀똌 감옥, 닥그레이(Dak Gle) 감옥과 같은 전형적인 국립 역사 유적지; 찰리(Charlie) 언덕, 닥또-똌까잉(Dak To - Tan Canh) 전장 등 유명한 랜드마크; 목조 교회, 주교의 궁전, 박아이(Bac Ai) 파고다 등 역사, 문화 및 고대 건축 작품; 즈똌레이(Chu Mom Ray) 국립공원, 응옥링(Ngoc Linh) 자연보호구역, 닥위(Dak Uy) 특수 용도 산림, 알리(Yaly) 수력 저수지 지역과 같은 자연보호구역 등등은 껀똌성의 관광 잠재력과 강점에 기여하고 있음.



망덴(Mang Den) 국립 생태관광 지역



찰리(Charlie) 언덕



즈똌레이(Chu Mom Ray) 국립공원



알리(Yaly) 수력 저수지 지역

0 인센티브 지원 정책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 아래 법적 근거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법인세	토지/수면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투자우대 분야: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미등록 분야: 11년간 계속 면제

(수입세)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외국인 투자현황

0 외국인 투자(FDI)

2022년 12월 말까지 껀똥성 내 총 외국인 투자는 8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2.13억 달러 투자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0 한국투자

껀똥성에는 한국투자는 1개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0.11억 달러 투자금액이 등록되어 있음. 껀똥성에 투자한 6개의 국가 중 건수 기준으로 3위, 투자액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0 껀똥성 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 (US달러)
1	풍력 발전소	풍력 발전	독일	145.83
2	가공 공장 위한 원료림 조성	원료림 조성	홍콩 - 중국	44.67
3	축산업과 결합하여 수출용 한랭지 과일 및 채소를 생산하는 유기농 농장 껀플롱(Kon Plong) 현 닥롱(Dak Long) 마을	한랭지 과일 및 채소를 생산	한국	11.23
4	농산물 전분 가공 공장 건립 사업	전분 가공	중국	8.75
5	국제 유기농 기준에 따른 청정 농산물 생산	농산물 생산	프랑스	0.83
6	CJ CGV Vietnam Co., Ltd 껀똥 지사	영화관	영국령 버진 제도	0.75
7	국제 기준에 따른 유기농 농장	농산물 생산	프랑스	0.5
8	첨단 농업 농장	농산물 생산	호주	0.42

□ 공단 현황

0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	면적 (ha)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사
1	베이(Bo Y) 국제 국경 관문 경제구역	1999	70,4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응옥호이(Ngoc Hoi) 현 베이(Bo Y) 마을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3국 개발 삼각관계의 중심이자 동서경제회랑과 연결된 추진 경제구역임 주요 분야: 다분야 현재 경제구역관리위원회는 경제구역의 실제적인 여건과 지방 상황에 맞게 베이(Bo Y) 경제구역의 전반적인 계획을 조정하는 중임 	껀똥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2	호아빈 (Hoa Binh) 공단	2005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껀똥시 레러이(Le Loi) 동 인프라 완성도: 100%, 운영중 투자유치분야: 산업, 임산물 가공, 목제품 생산 등 	껀똥성 경제구역 인프라 개발 투자 회사



순번	공단명	설립년	면적 (ha)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사
3	닥또 (Dak To) 공단	투자 진행중	146.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닥또(Dac To) 현 닥또 군 • 인프라 완성도: 인프라 구축하는 중이며, 운영되지 않음 • 투자유치분야: 종이/펄프/문구류 생산, 농림산물 생산, 미생물 비료 생산, 건축 자재 생산, 지원 산업 등 	Tan Mai Group Joint Stock Company
4	사오마이 (Sao Mai) 공단	2004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꼰똌시 호아빈(Hoa Binh) 마을 • 인프라 완성도: 20% • 투자유치분야: 식품 가공, 의약품 가공, 농림산물 가공, 친환경 산업 등 	꼰똌성 경제구역 인프라 개발 투자 회사

□ 투자 유망분야

▪ 꼰똌성의 잠재력과 강점을 기반으로 다음 분야에 집중을 두고 있음:

- ① 농업: 꼰똌성은 첨단 농업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곳이며, 전형적인 예로는 꼰플롱(Kon Plong) 현 망덴(Mang Den) 군의 과일과 채소, 한랭지 해산물 및 약용 식물, 닥그레이(Dak Gle) 현 및 뚜머롱(Tu Mo Rong) 현 해발 약 1,500m의 응옥링(Ngoc Linh) 산악 지역에 재배된 응옥링 인삼, 닥하(Dak Ha) 현의 커피, 이아허드라이(Ia H'Drai) 현의 집중된 가축 사육 지역임.
- ② 임업: 꼰똌성은 전국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큰 5개 성 중 하나임. 2022년 산림면적은 609,968.95ha로 성 전체 자연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매년 평균 목재 채굴량은 15,440m³, 장작 추출량은 약 260,000 Ster, 라탄 채굴량은 약 54톤, 대나무 추출량은 약 16만 그루임. 기타 임산물로는 생죽순, 동잎, 송진 등이 있음.
- ③ 관광: 꼰플롱(Kon Plong) 현 망덴(Mang Den) 국립 생태관광지역은 국무총리의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총 규모는 약 136,000 헥타르에 달하고 생태관광 개발에 큰 이점을 창출하고 있음.
- ④ 에너지: 꼰똌성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 연간 평균 일조 시간: 2,500시간 이상
 - ❖ 실제 총 방사선량: 1,568.9kWh/m², 일평균 4.3kWh/m²
 - ❖ 예상 용량: 약 7,000MWp
 - ❖ 평균 풍속: 6m/s



□ **컨뚝성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 연락처/이메일
컨뚝성 투자진흥 및 창업 지원 센터	Mr. Le Cong Dinh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260-391-0260 • Email: ttxttdt.skhdtd@kontum.gov.vn • Website: http://ipckontum.gov.vn
컨뚝성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Mr. Huynh Quoc Trung 부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l: +84-260-391-0606 • Email: banquanlykhukinhte.kontum@chinhphu.vn • Website: http://kkt.kontum.gov.vn

<끝>

2023 베트남 온·오프라인 신유통채널 현황 및 한국 농식품 진출전략 조사 보고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I. 신유통채널 개요

1. 조사 수행 배경
2. 신유통채널의 정의

II. 오프라인 신유통채널

1. 오프라인 신유통채널 현황
2. 신유통채널 1 : 약국
3. 신유통채널 2 : 병원
4. 신유통채널 3 : 영유아용품점
5. 설문조사 및 인터뷰

III. 온라인 신유통채널

1. 온라인 신유통채널 현황
2. 온라인 신유통채널 1 : 틱톡숍
3. 온라인 신유통채널 2 : 페이스북숍
4. 각 채널의 운영방식 비교

IV. 신유통채널 진출방안

1. 한국 농식품 진출현황
2. 한국 농식품의 신유통채널 진출전략

V. 부록

1. 통관 및 검역
2. 인증
3. VFA등록 절차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 내 자료-보고서-이슈별조사에서 확인가능](#)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3. 10. 20 기준 누계		2023. 1. 1 ~ 10.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795	84,105.82	391	1665.04	3,925.63
싱가포르	3,412	73,408.57	324	3,093.81	4,649.43
일본	5,227	71,414.41	261	725.39	3,011.22
대만	3,071	38,958.15	172	1,997.98	2,543.29
홍콩	2,400	32,929.69	256	3,098.82	3,537.84
중국	4,105	26,502.16	566	2,515.99	3,377.75
버진아일랜드(영)	908	22,702.71	23	46.57	130.28
네덜란드	432	14,300.18	19	373.93	890.91
태국	726	13,842.95	48	461.86	670.09
말레이시아	729	13,096.18	32	3.43	21.27
미국	1,306	11,813.80	96	88.33	512.98
기타	6,477	56,996.43	363	1,078.15	2,491.20
전체 합계	38,588	460,071.05	2,551	15,149.30	25,761.89(27.5)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3. 10. 20 기준 누계		2023. 1. 1 ~ 10.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6,676	278,597.29	855	13,266.33	18,838.29
2	부동산 경영	1,117	67,436.31	52	756.03	2,136.92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4	38,392.05	11	100.33	131.2
4	호텔, 외식서비스	979	12,848.02	54	29.6	76.61
5	건설	1,814	11,005.46	34	72.52	273.52
6	도소매, 유지보수	6,839	10,877.47	753	328.52	906.53
7	물류운수	1,083	6,081.34	103	212.16	319.52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445	5,403.59	342	136.23	773.21
9	정보통신	2,902	5,102.95	249	36.87	356.99
10	채광	109	4,994.57	1	100	100.2
11	교육, 양성	681	4,602.81	61	12.28	28.32
12	농, 임, 수산	535	3,883.96	16	44.03	50.86
13	예술 오락	144	3,165.99	5	7.39	10.6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6	3,158.22	3	115.75	116.1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6	1,758.43	3	6.6	11.1
16	행정, 지원 서비스	609	1,057.80	50	18.14	46.42
17	금융, 은행, 보험	94	927.23	9	7.07	1,541.42
18	기타 서비스	152	766.48	7	42.97	44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 계	38,622	460,071.05	2,608	15,292.83	25,761.89(27.5)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US\$억)

구분	2020	2021	2022	2023.10(누계)
수 출	2,826.5	3,363.1	3,713	2,914.6(-7.0)
수 입	2,627	3,322.3	3,589	2,668.7(-12.2)
무역수지	199.5	40.8	124	245.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10(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183	57,537	57,994	44,127(-12.4)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44,576	50,828	55,536	46,521(-0.3)
기계/플랜트 및 부품	27,193	38,344	45,751	35,397(-7.4)
섬유/직물제품	29,809	32,753	37,566	27,671(-12.9)
신발류	16,791	17,751	23,895	16,443(-18.3)
원목 및 목제품	12,371	14,809	16,011	10,910(-19.3)
철강제품	5,258	11,795	7,993	3,314(-15.6)
수송수단 및 부품	9,090	10,616	11,988	17,462(17.0)
수산물	8,412	8,886	10,923	7,441(-20.7)
원사(Yarn)	3,736	5,612	4,713	3,641(-10.8)
기타	74,235	87,379	98,934	78,532
합 계	282,654	336,310	371,304	291,459(-7.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품 목 명	2020	2021	2022	2023.10(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63,971	75,440	81,884	71,289(1.2)
기계/플랜트 및 부품	37,251	46,296	45,192	33,926(-10.3)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645	21,434	21,126	7,107(-60.0)
의류(원단)	11,875	14,324	14,706	10,711(-14.4)
플라스틱 원료	8,397	11,685	12,387	8,055(-24.9)
각종 철강	8,066	11,523	11,920	8,492(-17.6)
기타 비금속	6,052	8,611	9,253	6,252(-20.8)
플라스틱 제품	7,274	7,959	8,119	6,171(-10.0)
화학제품	5,741	7,627	9,144	6,241(-15.9)
화학물질	5,016	7,735	8,747	6,363(-19.3)
기타	92,412	119,600	136,423	102,262
합 계	262,700	332,234	358,901	266,869(-12.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10(누계)
1	미국	61,347	77,077	96,293	109,388	79,249
2	중국	41,414	48,905	56,009	57,702	49,584
3	한국	19,720	19,107	21,945	24,293	19,651
4	일본	20,413	19,284	20,128	24,232	19,234
5	홍콩	7,156	10,437	11,996	10,936	7,587
6	네덜란드	6,881	6,999	7,686	10,430	8,339
7	독일	6,555	6,644	7,286	8,968	6,175
8	인도	6,674	5,235	6,259	7,961	7,069
9	태국	5,272	4,917	6,161	7,476	6,012
10	영국	5,758	4,955	5,765	6,065	5,212
	기타	82,999	79,094	96,782	103,853	83,347
	합계	264,189	282,654	336,310	371,304	291,459(-7.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9	2020	2021	2022	2023.10(누계)
1	중국	75,452	84,187	109,874	117,866	89,338
2	한국	46,935	46,895	56,155	62,088	43,001
3	대만	15,173	16,701	20,772	22,631	15,349
4	일본	19,526	20,341	22,648	23,373	17,743
5	미국	14,365	13,713	15,270	14,470	11,341
6	태국	11,656	10,968	12,564	14,092	9,809
7	오스트레일리아	4,456	4,677	7,946	10,144	7,066
8	말레이시아	7,291	6,575	8,148	9,124	6,441
9	인도네시아	5,703	5,382	7,587	9,641	7,155
10	인도	4,538	4,435	6,950	7,086	4,954
	기타	47,975	48,826	64,320	68,386	54,672
	합계	253,070	262,700	332,234	358,901	266,869(-12.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10(누계)
수출	48,178(-0.9)	48,510(0.7)	56,729(16.9)	60,972(7.5)	43,939(-14.8)
수입	21,071(7.3)	20,579(-2.3)	23,965(16.5)	26,726(11.5)	21,836(-4.7)
무역수지	27,107	27,931	32,763	34,246	22,103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10(누계)
반도체	10,730(-1.9)	11,501(7.2)	14,026(22)	16,240(15.8)	10,019(-26.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970(-10.5)	9,552(19.9)	12,050(26.1)	12,527(4.0)	10,181(-3.4)
석유제품	2,196(11.2)	1,196(-45.5)	1,157(-3.2)	3,733(222.3)	2,965(-5.0)
무선통신기기	2,932(11.4)	3,460(18)	3,315(-4.2)	2,358(-29.2)	1,805(-9.3)
합성수지	1,624(-2.1)	1,615(-0.6)	2,415(49.5)	2,581(6.9)	1,658(-27.9)
기구 부품	2,230(-4.4)	2,241(0.5)	2,405(7.3)	2,194(-8.8)	1,553(-17.5)
플라스틱 제품	1,210(0.4)	1,115(-7.8)	1,174(5.3)	1,067(-9.2)	849(-6.4)
철강판	1,157(10.4)	1,052(-9.1)	1,267(20.4)	1,069(-15.6)	741(-24.5)
기타기계류	842(-3.9)	686(-18.6)	717(4.5)	815(13.6)	691(-0.7)
계측제어분석기	783(12.4)	669(-14.5)	957(43.0)	793(-17.1)	653(-6.9)
기타	16,678	15,437	17,039	17,242	12,824
합계	48,178(-0.9)	48,511(0.7)	56,729(16.9)	60,972(7.5)	43,939(-14.8)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US\$백만, 증감률%)

품목명	2019	2020	2021	2022	2023.10(누계)
무선통신기기	5,691(17.6)	4,980(-12.5)	5,579(12)	5,986(7.3)	3,851(-28.5)
의류	3,646(2.1)	3,145(-13.7)	3,393(7.9)	3,840(13.2)	3,151(-5.9)
컴퓨터	679(25.9)	1,270(87.1)	1,659(30.6)	1,948(19.1)	1,768(7.0)
반도체	471(19.1)	561(18.9)	750(33.8)	787(5.0)	1,620(154.0)
산업용 전기기기	479(14.8)	574(20)	725(26.2)	970(33.8)	1,152(46.7)
신변잡화	1,053(7.4)	1,029(-2.2)	984(-4.4)	1,250(27.2)	135(-2.8)
목재류	657(-17.1)	632(-3.9)	755(19.5)	942(24.8)	616(-19.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197(5.2)	1,027(-14.2)	876(-14.7)	783(-10.5)	585(-16.4)
기구부품	512(15.1)	481(-5.9)	624(29.6)	654(4.8)	471(-16.0)
영상기기	350(6.3)	391(11.8)	426(8.9)	441(3.6)	344(-7.6)
기타	6,331	6,474	8,161	9,103	8,143
합계	21,072(7.3)	20,579(-2.3)	23,966(16.5)	26,726(11.5)	21,836(-4.7)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2~2023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2년(연간)	%	3.6	7.6	8.7	5.3	8	
	2023년 2Q	%	0.5	4.3	2.9	5.2	4.1	
	2023년 3Q	%	0.7	4.5*	3.3	4.9	5.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124.9	N/A	126.2	N/A	7.80%
		2023년 8월	-	109.3	3.9	129.1	N/A	2.60%
		2023년 9월	-	123.9	5.7	130.5	N/A	5.10%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2년(연간)	-	N/A	52.6	N/A	N/A	N/A
		2023년 8월	-	49.9	49.7	47.8	53.9	50.5
		2023년 9월	-	50.1	50.6	46.8	52.3	49.7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2년(연간)	-	108.4	N/A	100.5	119.9	N/A
		2023년 8월	-	114.3	N/A	N/A	125.2	N/A
		2023년 9월	-	114.9	N/A	N/A	124.3	N/A
	소매판매	2022년(연간)	-	100.3	4.50%	161.5	6.20%	19.80%
		2023년 8월	-	102.4	3.90%	172.8	1.10%	7.60%
		2023년 9월	-	99	5.30%	174.5	1.50%	7.50%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2년(연간)	%	N/A	5.8	3.3	4.2	3.2
		2023년 8월	%	114.3	5.3	2	3.3	3
		2023년 9월	%	114.3	6.1	1.9	2.3	3.7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2년(연간)	%	22.5	N/A	9.2	3.87	△11.0(누계)
		2023년 8월	%	N/A	N/A	8.8	5.77	8.2(누계)
		2023년 9월	%	N/A	N/A	8.8	5.77	7.7(누계)
고용	실업률	2022년(연간)	%	2.1	5.4	3.8	N/A	2.3
		2023년 8월	%	1.9	4.4	3.4	N/A	2.3
		2023년 9월	%	2	4.7*	3.4	5.3	2.3
무역	수출증가율	2022년(연간)	%	15.6	14.5	25	26.1	7.1
		2023년 8월	%	△14.7	4.2	△18.6	△21.2	△7.6
		2023년 9월	%	△12.7	△6.3	△13.7	△14.8	4.6
	수입증가율	2022년(연간)	%	20.1	17.3	31.3	21	8.6
		2023년 8월	%	△15.6	△13.1	△21.2	△14.8	△8.3
		2023년 9월	%	△11.8	△14.7	△11.1	△12.5	2.6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2024 베트남 엑스포(VIETNAM EXPO)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전시회명	2024 베트남 엑스포 (VIETNAM EXPO)
개최기간	2024. 4. 3.(수) ~ 4. 6.(토) (4일간)
개최장소	Hano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ICE)
전시품목	미용화장, 패션잡화, 식품음료, 소재장비 등 종합품목
주최사명	베트남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베트남무역진흥공사(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 VIETRADE)
개최주기	매년
홈페이지	http://vietnamexpo.com.vn/en
참가신청	*세부사항 확인 : 상세 : 사이트관리 글로벌 전시 플랫폼 (gep.or.kr) *신청기간 : ~ 2023년 11월 5일(수) ~ 12월 5일(화) 18:00 (한국시간 기준) 까지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가기업 모집

대상	국내에서 수출 중(예정 포함)인 국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 현지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등 서비스(창고 내 보관 필수)			
신청기간	'23. 12. 4(월) 09:00 ~ '22. 12. 15(금) 18:00(선정평가 방식)			
연간비용	비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도총액
	기업부담	30~600만원	50~1,000만원	최소 100만원
	국고지원	70~1,400만원	50~1,000만원	최대 2,000만원
	*매칭펀드 운영, 국고지원 비중: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VAT포함			
신청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상단배너 '사업신청' 클릭 → 사업명: '물류'검색 → "2024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신청			
문의처	하노이무역관 이연호 대리 ☎ +84-24-3946-0511(334)			



Vietnam-Korea
Business Cooperation Center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문의처



+84 24-3946-0511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 KOTRA >